

한·중 첨단산업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대응 전략¹⁾: 반도체·배터리·의약품을 중심으로

요약

미·중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한·중 간의 공급망 구조에도 변화가 예측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의약품 등 글로벌 분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구조의 변화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첨단산업의 공급망 구조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배터리·의약품 모두 소재 분야에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국시장 진출', '소재 및 부품 조달', '제3국 진출' 등이 대중국 공급망 의존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그간 이루어진 한국의 활발한 대중국 FDI도 양국 간 조달 및 유통 등의 공급망 구조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공급망 재편에 따른 중국 공급망 활용의 미래 중요성은 모든 기업에서 '중국시장 진출'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에도 중국의 공급망을 활용한 현지시장 진출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배터리 기업의 대한국 그린필드(Green Field)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배터리산업에서 양국 간의 공급망 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급망 재편을 활용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과도한 소재 분야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의 내재화·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며, 중국 공급망을 활용한 현지시장 진출 전략과 중국의 자본·기술·시장을 활용한 대중국 기술 도입형, 공급망 거점형 협력 모델 등의 새로운 협력 모델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1) 본 연구는 조은교 외(2023), 「첨단산업의 한중 공급망 의존성 및 경쟁우위 분석과 우리의 대응 전략: 반도체·배터리·의약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1. 서론

미·중 경쟁이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제재, 산업 육성 정책의 부활,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의 진영화 등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은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동맹을 확대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원자재 부문의 점유율 우위와 방대한 자국 시장을 토대로 수출입 규제 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의 중간재에 대한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한·중 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부품뿐만 아니라 리튬, 원료의약품과 같은 소재 분야까지 분업 구조가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우리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간 첨단산업의 공급망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양국의 공급망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을 살펴본다. 반도체·배터리·의약품산업을 중심으로 대중국 공급망 의존성 및 공급망 구조의 특징을 분석하고,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중 간 공급망 구조의 변화를 전망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공급망 대응 전략과 대중국 공급망 전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 첨단산업의 대중국 공급망 의존

(1) 한국의 대중국 소재·부품·장비별 수입 의존도 분석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분석을 위해 반도체·배터리·의약품산업의 주요 수입 품목을 소재·부품·장비로 구분(HS 코드 6단위)하고, 전체 수입에서 대중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

1) 반도체

한국의 대중국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의존도(전체 수입 중 중국 비중)를 분석해 보면 <표 1>과

같다. 특히 반도체 소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34.0%로 가장 높았다. 2022년 국내 반도체 소재 총수입액인 30억 8,000만 달러 중 10억 5,000만 달러가 대중국 수입에 해당한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재는 실리콘 웨이퍼, 리드프레임 관련 소재, 조립회로 부품 등으로 반도체 제조와 직결되는 소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2) 배터리

한국 배터리 원자재의 2022년 총수입액은 58억 2,000만 달러이며, 이 중 64.6%에 해당하는 37억

〈표 1〉 한국의 반도체 관련 품목 국가별 수입 비중(2022년)

단위: %

국가명	부품	소재	장비
국내 총수입액	72.3억 달러	30.8억 달러	218.9억 달러
중국	8.4	34.0	5.4
독일	10.2	2.2	2.5
일본	20.9	30.9	23.7
말레이시아	1.9	1.5	3.2
네덜란드	10.4	0.1	22.7
싱가포르	5.4	12.7	10.7
대만	2.5	3.9	1.8
미국	30.0	10.4	22.0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활용, 조은교 외(2023), 「첨단산업의 한중 공급망 의존성 및 경쟁우위 분석과 우리의 대응 전략: 반도체·배터리·의약품을 중심으로」.

주: HS code 6단위에서 소재·부품·장비로 구분하여 계상.

〈표 2〉 한국의 배터리 관련 품목 국가별 수입 비중(2022년)

단위: %

국가명	원자재	소재	장비
국내 총수입액	58.2억 달러	135.2억 달러	16.6억 달러
칠레	29.6	0.0	0.0
중국	64.6	72.6	22.7
독일	0.1	2.1	16.7
핀란드	0.8	0.6	9.6
일본	0.3	12.2	14.7
미국	0.5	3.9	10.4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활용, 조은교 외(2023), 「첨단산업의 한중 공급망 의존성 및 경쟁우위 분석과 우리의 대응 전략: 반도체·배터리·의약품을 중심으로」.

주: HS code 6단위에서 소재·부품·장비로 구분하여 계상.

6,000만 달러가 중국에서 수입되었다. 배터리 소재의 경우는 2022년 총수입액이 135억 2,000만 달러이며, 이 중 대중국 수입 비중이 72.6%로 원자재보다 수입액과 비중 모두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았다. 개별 품목에서도 전구체, 전해액, 양극재, 음극재, 바인더, 파우치 등 모든 주요 소재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배터리 가격의 40~50%를 차지하는 양극재 및 전구체의 대중국 의존도는 95% 수준에 달한다.

3) 의약품

한국 원료의약품의 2022년 총수입액은 29억 1,000만 달러이며, 대중국 수입액은 이 중 34.3%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 규모이다. 이는 원료의약품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준임을 보여 주며, 의약품 완제품이 벨기에, 미국 등 선진국에 주로 의존하는 것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개별 품목으로는 아황산나트륨, 황화합물, 모르포린, 기타 항생물질 등 1차 가공원료의 대중국 의존도가

〈표 3〉 한국의 의약품 관련 품목 국가별 수입 비중(2022년)

단위: %

국가명	완제품	원료
국내 총수입액	22.2억 달러	29.1억 달러
벨기에	49.8	0.3
중국	1.4	34.3
독일	5.9	6.1
인도	0.3	7.9
일본	2.6	12.6
싱가포르	5.7	0.5
미국	17.7	15.9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활용, 조은교 외(2023), 「첨단산업의 한중 공급망 의존성 및 경쟁우위 분석과 우리의 대응 전략: 반도체·배터리·의약품을 중심으로」.

주: HS code 6단위에서 소재·부품·장비로 구분하여 계상.

높았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품목이 많은 편인데, 이는 중국 원료의약품의 가격경쟁력이 수입 비중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2) 대중국 공급망 의존 요인

〈표 4〉는 한국 첨단산업(반도체·배터리·의약품)이 대중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요인을 정리한 것이다. 각 요인은 3개 산업에 속한 기업체의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도출되었으며²⁾,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요인을 주요 요인으로 선별하였다.

첫째는 해당 요인으로 인해 대중국 공급망에 의존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관련 기업 수)가 얼마나 많은지, 둘째는 해당 요인이 공급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중요도)에 대한 것이다.

먼저 반도체산업을 살펴보면, 대중국 공급망 의존 요인으로 가장 많은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판로 개척)을 꼽았으며, 32개 기업 중 30개사가 응답하였다. 이는 중국이 한국 반도체산업의 최대

2) 설문조사는 중국 내 법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중국과 거래관계가 있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9~10월 기간 동안 반도체 34개사, 배터리 30개사, 의약품 32개사가 응답하였다.

〈표 4〉 첨단산업별 대중국 공급망 의존 주요 요인

반도체(34개 기업 응답)	배터리(30개 기업 응답)	의약품(32개 기업 응답)
중국 시장 진출(30, 2.87) 제3국 진출(18, 2.61) 부품 조달(12, 2.50) 소재 조달(11, 2.55) 유통/판매 비용 절감(10, 3.00) 주요 고객사 요구(9, 2.78)	제3국 진출(24, 3.00) 중국 시장 진출(22, 2.59) 소재 조달(14, 3.00) 유통/판매 비용 절감(12, 2.67) 원소재 조달(9, 3.33)	소재·원료의약품 조달(28, 3.11) 제3국 진출(26, 2.92) 중국 시장 진출(18, 2.94) 조달 품질/신뢰성 개선(15, 3.53) 중국의 독점 보유(14, 2.86)

자료: 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3년 9~10월), 조은교 외(2023), 「첨단산업의 한중 공급망 의존성 및 경쟁우위 분석과 우리의 대응 전략: 반도체·배터리·의약품을 중심으로」.

주: 1) 괄호 안은 공급망 의존 요인별로 응답 기업 중 관련 기업 수, 중요도(관련 기업 응답의 평균값), 복수 응답.

2) 중요도 응답값은 4점 척도(1: 낮음, 4: 높음).

판매처라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판로 개척에 해당하는 ‘제3국 진출’(아세안, 유럽, 중동 등)이 관련 기업 18개사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서 ‘부품 조달’ 12개사, ‘소재 조달’ 11개사, ‘유통/판매 비용 절감’ 10개 기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배터리산업의 대중국 공급망 의존 요인은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판로 개척이 가장 많은 관련 기업 수를 나타냈으나, 세부적으로는 일부 차이가 있었다. 응답 기업 수는 ‘제3국 진출’이 24개사로 가장 많았고 ‘중국 시장 진출’이 22개사로 뒤를 이었다. 반도체와 달리 제3국 진출 목적이 큰 이유는 한국 배터리 제조사가 중국 현지시장 판매보다는 중국에서 생산·가공한 이후 제3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2016년 말부터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모두

배제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점유율이 위축되었고, 중국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이 뛰어난 영향도 있다. 다음의 주요 요인은 ‘소재 조달’(14개사), ‘유통/판매 비용 절감’(12개사), ‘니켈/코발트/리튬 등 원소재 조달’(9개사) 순이다. 반도체와 달리 부품 조달 요인보다 소재와 원소재 조달 요인이 더욱 중요했다.

의약품산업에서는 ‘제3국 진출’과 ‘중국 시장 진출’이 각각 26개, 18개 기업으로 반도체, 배터리와 유사하게 응답 기업이 많았다. 반면, ‘유통/판매 비용 절감’ 관련 기업은 1개사로 매우 적어 차이를 보였다. ‘소재 및 원료의약품 조달’이 28개사로 해외 판로 개척 이상으로 관련 기업이 많다는 특징을 보였으며, 타 산업과는 달리 ‘조달 품질/신뢰성 개선’, ‘중국의 독점적 보유로 대체 불가’ 요인의 관련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3. 한·중 공급망 구조 변화 전망

(1) 한국의 대중국 공급망 의존 변화 전망

〈그림 1〉은 앞서 〈표 4〉에서 제시한 3개 첨단산업의 대중국 공급망 의존 주요 요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향후 변화 방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반도체산업은 중국 등 주요 고객사 요구의 중요도가 현재 2.78점에서 미래에는 3.44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앞으로도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다. 즉, 최대 수요시장인 중국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기 위한 중국 내 조달 또는 현지 생산 및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다.³⁾ 제3국 진출의 경우에도 중요도가 현재 2.61점에서 미래 3.00점으로 크게 증가한다. 중국이 보유한 생산과 가격 우위는 향후 국내 기업이 제3국에 진출하는 중요한

3) 현재는 반도체 후공정을 중국에서 진행하는 방식의 현지 생산이 중요하나, 미·중 갈등과 국내 후공정 분야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중국 현지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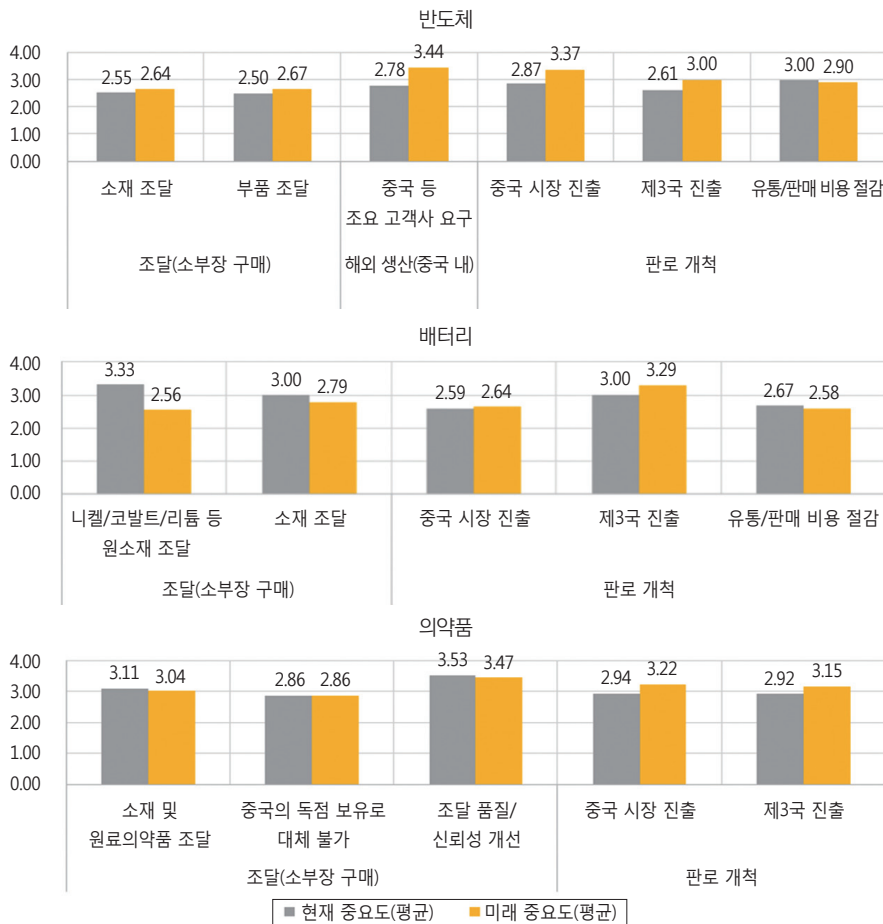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유통/판매 비용 절감은 중요도가 소폭 감소하며 소재 조달과 부품 조달의 중요도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다.

배터리산업에서는 향후 원소재 조달과 소재 조달의 중요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중 갈등이 촉발한 IRA와 같은 미국의 보조금 정책, 원소재 및 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의 수요가 결합된 결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배터리 제조 3사가 모두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한국은 배터리 원소재(또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칠레,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협력하면서 원소재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소재 조달의 중요도는 현재 3.33에서 미래 2.56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도 감소

〈그림 1〉 첨단산업별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변화 전망



자료: 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3년 9~10월).
 주: 각 요인에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응답 결과.

하나 현재 일부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고 중국 기업이 IRA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소재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원소재 대비 의존도 감소가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중국이 국내에서 생산한 소재를 조달하는 형태의 국내 배터리 생산기지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과 중국의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한편 중국 시장 진출은 현재와 비슷한 중요도를 유지한 반면, 제3국 진출의 미래 중요도가 비교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3국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수요가 여전한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은 원소재, 소재, 장비 등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국내보다 생산경쟁력에서 우위를 지니기 때문이다.

의약품산업은 중국 시장 진출, 제3국 진출 등 판로 개척의 미래 중요도가 증가하며, 다른 주요 요인의 중요도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이다. 특히 중국이 경쟁력을 갖춘 소재 및 원료의 약품 조달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외자 유치 정책과 인허가 제도 개선에 힘입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현지시장형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원료의약품 조달 다변화와 국내 자급도 제고에 힘쓰고 있으나, 중국을 포함한 현지 수요에 대응한 해외 생산이 늘어나고 원료 조달의 가격, 품질 및 신뢰성 한계로 국내 자급도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중국의 대한국 공급망 의존도 변화

최근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여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표 5〉). 이를 통해 기존에는 중국에서 조달했던 일부 배터리 소재의 생산이 한국에서 이뤄지고, 향후 한·중 간 공급망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IRA 발표 이후 중국의 배터리 소재 기업

〈표 5〉 중국 배터리 기업의 대한국 진출 현황

기업명	특징	생산 능력 및 향후 계획	품목	지역명
LG화학	- 중국 화유코발트와 합작을 통해 새만금 1.2조 원 투자 계획	- 2026년 1차 5만 톤, 2028년 2차 5만 톤 추가 증설	전구체	새만금
	- 중국 화유코발트와 합작을 통해 구미 4,700억 원 투자 계획	- 2024년 6만 톤 양산 계획	양극재	구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 SK온, 중국 거린메이와 합작하여 공동법인 설립	- 2024년 5만 톤, 2026년 20만 톤 CAPA 확대 목표	전구체	새만금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 중국 CNGR과 합작법인을 통해 1.6조 원 규모 투자 - 글로벌 전구체M/S 1위 중국 업체	- 2026년 니켈 5만 톤, 전구체 11만 톤 목표	니켈 및 전구체	포항
포스코퓨처엠	- 중국 화유코발트와 합작을 통해 포항에 1.2조 원 투자 계획	- 미정	전구체	포항
이엠티	- 중국 Ronbay그룹 자회사	- 현재 6,000톤 CAPA, 증설 계획 미정	양극재	청주

자료: 언론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 한국 진출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중국 소재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NCM 배터리 소재 기업과 셀 제조 기업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양극재 구성 소재인 전구체가 가공될 경우, IRA 부품·광물 요건 충족이 용이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생산에 대한 상대적 이점이 발생하며, 중국 기업이 IRA 요건 충족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한국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대(對)한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배터리산업에서 중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기존 다른 산업에서 이루어지던 M&A 투자에서 벗어나 그린필드(Green Field) 투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중국의 소재기술과 한국의 관리 경영 노하우 및 제조 기술이 합작한 형태의 협력

으로 전환되고 있다. 더 나아가 공급망 재편에 따른 IRA까지 겹치면서 우회 수출 목적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한중 간 새로운 공급망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향후 배터리산업에서는 기존 한국의 대중국 생산거점형 투자가 중국의 대한국 생산거점 및 현지시장형 투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과거 한국이 중국을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던 투자 형태가 반대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배터리 관련 소재 및 부품의 대중 수입이 증가하고 이를 이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배터리 완제품이 중국으로 재수출되거나,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되는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우리의 대응 전략

미·중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한·중 간의 공급망 구조에도 변화가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대중국 소재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한편으로는 공급망 재편 이후에도 중국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대중국 진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대중국 공급망 전략을 공급망 내재화와 다변화, 대중국 협력 전략으로 양분하여 제시한다.

(1) 공급망 내재화와 다변화 전략

먼저 국내 소재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 설비 투자, 기술개발 지원 등의 공급망 내재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대중국 소재 의존도는 대외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므로 수입 대체선을 발굴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2) 대중국 협력 전략

마지막으로 대중국 공급망 협력 모델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에 따르면, 공급망 의존요인별 변화 전망에서 3개 업종 모두 '중국시장 진출'의 미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기업들은

〈표 6〉 한중 공급망 구조의 특징과 전망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공급망 구조 변화 전망	현재	· 메모리 후공정을 중심으로 대중국 생산 의존도 높음	· 소재의 의존도 심화, 중국 내 생산 기지 의존도 높음	· 원료의약품 중심으로 의존도 감소 예측되나 변화의 크기는 작음
	미래	· 대중국 생산 의존도 감소하고, 한국 내 혹은 대미국 현지 투자 증가	· 중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로 한중 간 새로운 공급망 구조 형성 · 배터리용 핵심광물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 감소	· 공급망 다변화로 대중국 의존도 감소 · 다만, 중국 의약품시장 진출로 기업 간 새로운 거래관계가 형성될 가능성 높음
대응 전략	공급망 내재화	· 정·제련 설비 투자로 국내 소재 생산 확대 · 공급망 리스크 대비 안전재고 확보 (핵심 소재 등)	· 원자재 정제련 설비 및 소재 생산 시설 투자 확대	· 원료의약품 생산시설 내재화 지원 · 신약기술 등 차세대 기술 개발 강화 · 원료의약품 대체기술 개발
	공급망 다변화	· 원소재·소재 수입처 다변화	· 광산, 광물, 소재 등 공급선 다변화 · 핵심광물 공급망 투자 및 북미·유럽 등 현지 공급망 구축 지원	·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GMP)등의 상호인정 등 국가 간 협의회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 원료의약품 수입처 다변화
	한중 협력	· 소재 분야의 의존도를 감안하여 소재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력 채널 확대	· 리사이클링 등 중국의 새로운 시장 진출 · 아세안 등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 중국 소재·원소재 기업과의 합작 법인 설립	· 파이프라인 수출 확대 등 중국 제약 기업과의 협력 강화 · 중국 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협력 지원

자료: 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23년 9-10월) 참조하여 작성.

향후에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내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유지하고자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첨단산업에서 중국 내 새로운 수요에 주목하고,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공급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의약품의 경우, 현지 진출 법인은 현지에서 생산한 의약품을 모두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은 매년 현지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SK 바이오팜, JW중외제약 등 국내 주요 제약 기업은 중국에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배터리산업의 경우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으로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3년 8월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화유코발트와 중국 현지에서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하였다. 새로운

시장인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과 협력하여 현지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공급망을 활용하여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업의 다각화 전략과 정부의 정책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공급망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 모델도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중국 소재에 대한 의존성을 낮출 수 없다면 중국 기업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로 최근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중국 배터리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로 우리가 중국 자본 및 기술 유입을 통해 국내 소재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 자본 및 기술 유입은 미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 우리 기업과의 경쟁 여건 등을 산업별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급망 재편을 활용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대(對)중국

공급망에 대한 전략 수립 시 의존도 탈피라는 획일적인 전략보다는 미·중 갈등하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첨단 제조 허브이자, 첨단제품 수출국으로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은교

산업통상연구본부 글로벌산업실 부연구위원
ekcho@kiet.re.kr / 044-287-3828
「첨단산업의 한중 공급망 의존성 및 경쟁우위 분석과 우리의 대응 전략: 반도체·배터리·의약품을 중심으로」(공저, 2023)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에 따른 중국의 전략과 우리의 대응: 이차전지를 중심으로」(공저, 2022)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의 대응 전략: 반도체·인공지능을 중심으로」(공저, 2021)



심우중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신산업실 전문연구원
swjkorea@kiet.re.kr / 044-287-3024
「첨단산업의 한중 공급망 의존성 및 경쟁우위 분석과 우리의 대응 전략: 반도체·배터리·의약품을 중심으로」(공저, 2023)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에 따른 중국의 전략과 우리의 대응: 이차전지를 중심으로」(공저, 2022)